인 사 말

김 철 하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CJ제일제당 부회장

지난 겨울의 기록적인 한파는 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그로 인해 급격한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년 이상기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곳곳의 뉴스를 접하며, 해를 더할수록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기후변화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 기우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기후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는 지역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 정부기관 및 학계에서 수년 전부터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그러나 연구의 많은 부분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예방대책과, 해충의 증식을 막거나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어, 식품업계가 이상기후에 의한 유통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내용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식품업계는 지난 겨울 강추위로 인해 많은 양의 유통 및 판매중인 제품들이 동결되는 등, 예상치 못한 물리적 변화로 인한 고객 클레임 증가로 인해 어려움과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좋은 원재료, 뛰어난 R&D력, 대량 생산으로 구현해 내는 제조품질 관리력 뿐만 아니라, 제조공장에서 최적화시킨 제품의 품질력을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유지시켜 주는 유통단계에서의 품질 관리수준과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겨울철 강추위로 인한 동파, 동결 및 하절기 폭염과 폭우 등 어떤 조건의 이상기후 상황에서도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안전한 제품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물리, 화학, 생물학적 식품안전 위해요소의 변화 가능성'과 '자연 생태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원료공급과 품질변화 가능성'에 의한 수급불균형 초래와 변질요인을 발굴하고 그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가공식품에 대한 부정적 오해를 해소시키는 동시에, K-Food의 글로벌화를 견인하고자 노력하는 학계의 노력이 활발합니다. 국민들이 가공식품 및 사용원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것으로써,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 기고는 물론이고, 출판(진짜 식품 이야기 등)을 통해서도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그 사례입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파하는 식품전문가가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식품기업은 글로벌 우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한국위생안전성학회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심층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